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직업선택요인 및 취업준비활동간의 관계연구

한미희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Career Choice factors and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Mi-Hee Han
Professor, Dep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직업선택요인 및 취업준비활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KCYPS) 중 1패널 7차년도 2016년 자료인 대학생들(2091명)을 선정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자아정체감은 직업선택요인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취업준비활동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직업선택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준비활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진출이 과업인 대학생들을 위하여 자아정체감의 확립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과 취업준비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교육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주제어 : 대학생, 자아정체감, 직업선택요인, 취업준비활동, 교육 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Career choice factors and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subjects were the group of 2091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urvey(KCYPS) as 7th graders. Their 7th year data in 2016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1.0,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Self identity was found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areer choice factors and not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and It was found that their self-identity of college students exer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areer choice factors but not on their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The research result is expected to help arrange detailed educational programs and/or self-identifying programs to help college students choose a career choice and prepare for employment-seeking activitie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Self-identity, Career choice factors,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educational program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2018).

*Corresponding Author : Mi-Hee Han(diaplus@nsu.ac.kr)

Received July 1, 2019

Revised August 2, 2019

Accepted August 20, 2019

Published August 28, 2019

1. 서론

대학생은 구체적인 자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즉 이는 개인만의 특성에 대한 자기인식 및 지각을 의미하며 수많은 갈등의 직면에서도 일관된 자신, 주체적인 자아의 통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 사실 대학생 시기에는 성인의 역할과 독립성을 실제로 많이 요구받긴 하지만 결국 사회인으로서의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아마도 이는 중등시기에 경험해야 하고 알아야 할 과제의 지연과 결국 준비되지 않은 대학생으로서의 사회적 자아의 완성과 역할에 대한 책임이 이유일 것이라고 사료된다[2].

즉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결국 스스로의 삶에 대한 준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3].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는 자신과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rikson(1968)은 이에 대하여 청소년 후기이며 성인초기인 대학생 시기를 '정체감 대 역할혼미'로 명명하였는데 이처럼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성인기의 발달적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4]. 그러므로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현대적 관점에 의하면 고정된 심리적 변인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현상에 의한 변화와 통합으로 발달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5]. 따라서 이는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활동과는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되어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생시기의 자아정체감은 성공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경험적 연구도 선행되어 왔으며 학교 적응,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강조 되어왔다[6]. 하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직업선택요인이나 취업준비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의 직업선택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개인특성 및 전공선택 동기가 그 원인이라고 설명되고 있으며[7,8], 취업준비활동의 연구 또한 학과 만족도나 대학생활 적응, 진로정체감 및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로 국한되어 진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9,10].

하지만 대학생들은 중등시기에는 접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전공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직접 시도하며 직업적 대안을 탐색해야하고 대학생활 설계를 통해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일부 대학생들은 여전히 부모나 타인에 의해 직업적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상태라는 모습을 보인다고 시사하고 있다[11].

실제로 직업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생계유지를 목표로 선택되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되는 요인들은 매우 심층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추론된다.

물론 직업의 선택은 시대적·개인적 선호,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소득수준, 도전과 책임감,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 지역적 위치, 복지 등에 의하여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 또한 직업선택의 기준을 정하는 데는 개인적 가치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또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목되어진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상기해야 할 문제는 대학생들은 직업을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준비활동까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준비활동은 통상적으로 취업을 위한 탐색과 참여, 인성관련 활동, 성적, 외국어 능력, 자격증, 국내의 다양한 활동 등의 스펙관리 그리고 입사지원서 제출 및 면접 등을 포함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13]. 즉 대학교육을 마친 후 사회로의 진출을 피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활동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실제로 취업준비활동은 자칫 생각으로만 직업선택과 직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인지적 활동과는 차원이 다르고 노력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확립이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취업준비활동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아정체감 확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확립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직업선택과 취업준비활동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교육활동의 수립과 운영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중, 중1 패널 7차년도 대학생 2091명이 대상이다. 이는 매년 실시했던 종단조사로서 남학생(1,067명)과 여학생(1,024) 그리고 광역시를 포함 전국지역의 학생들의 조사를 활용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ization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	927	39.4
	F	954	40.6
	Missing value	470	20.0
City	Seoul	195	8.3
	Busan	109	4.6
	Daegu	129	5.5
	Incheon	140	6.0
	Gwangju	69	2.9
	Daejeon	84	3.6
	Ulsan	89	3.8
	Gyeonggi-do	307	13.1
	Gangwon-do	56	2.4
	Chungbuk-do	106	4.5
	Chungnam-do	82	3.5
	Jeollabuk-do	100	4.3
	Jeollanam-do	95	4.0
	Gyeongbuk-do	134	5.7
	Gyeongnam-do	121	5.1
	Jeju	84	3.6
	Total	1900	80.8
System M. Value	451	19.2	
Total	2351	100.0	100.0

2.2 연구척도

2.2.1 자아정체감 척도

본 패널조사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을 보면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역코딩을 하였다.

2.2.2 직업선택요인 척도

본 패널 조사의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내용은 안정

적으로 오래 동안 일할 수 있는지, 수입(임금)이 많은지,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은지,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지, 일하는 환경이 쾌적한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는지, 직장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은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2.2.3 취업준비활동

본 패널 조사의 내용으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으로는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다. 3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셋째,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수간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변인간의 상관관계

자아정체감 변인과 직업선택요인, 취업준비활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Self-identity and Career choice factors

Factors	1	2	3
Self-identity(1)	1		
Career choice factors(2)	.081**	1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3)	.091	.930	1

** p<0.1

Table 3을 살펴보면 자아정체감과 직업선택요인($r=.81, p<.01$)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과 취업준비활동, 직업선택요인과 취업준비활동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1 자아정체감과 직업선택요인과의 상관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아정체감과 직업선택요인과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
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으며 이에 대한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Self-identity and Career choice factors

Factors	Self-identity(1)								Career choice factors(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1																							
2	-.212**	1																						
3	.393**	-.318**	1																					
4	-.193**	.286*	-.063**	1																				
5	.333*	-.153**	.291*	-.284**	1																			
6	-.137**	.234*	-.158**	.290*	-.185**	1																		
7	-.151**	.220*	-.177**	.266*	-.186**	.199*	1																	
8	-.162**	.282*	-.183**	.290*	-.175**	.198*	.620*	1																
9	.053*	-.030	.095*	.068*	.008	.072*	.016	-.028	1															
10	-.009	.093*	.009	.095*	.006	.091*	.008	-.002	.314*	1														
11	.116*	.019	.108*	.095*	.066*	.037	-.063**	-.031	.204*	.416*	1													
12	.187**	-.058*	.164*	.063*	.089*	.009	-.082**	-.040	.183*	.138*	.501*	1												
13	.198*	-.081**	.145*	-.146**	.213*	-.022	-.067**	-.109**	.138*	.067*	.139*	.220*	1											
14	.105**	-.013	.088*	-.007	.132*	.062*	-.018	-.052	.276*	.207*	.187*	.146*	.390*	1										
15	.014	.001	.057*	-.003	.099*	.019	-.008	-.066**	.229*	.250*	.175*	.126*	.270*	.501*	1									
16	.074*	-.074**	.087*	-.011	.065*	.050*	-.026	-.073**	.286*	.202*	.179*	.220*	.286*	.379*	.512*	1								
17	.155*	-.076**	.133*	.001	.141*	.029	-.224**	-.217**	.182*	.148*	.195*	.270*	.260*	.275*	.291*	.355*	1							
18	.015	.040	.039	.069*	.059*	.070*	.022	.000	.232*	.157*	.123*	.159*	.181*	.279*	.325*	.277*	.362*	1						
19	.074*	-.048**	.035	-.053	.143*	-.015	-.067**	-.071**	.151*	.172*	.157*	.123*	.327*	.352*	.385*	.332*	.369*	.417*	1					
20	.149*	-.052	.095*	-.115**	.187*	-.048**	-.140**	-.144**	.082*	.101*	.157*	.167*	.377*	.274*	.247*	.241*	.408*	.284*	.528*	1				
21	.256*	.422*	.209*	.512*	.154*	.436*	.600*	.617*	.075*	.087*	.100*	.095*	.028	.083*	.028	.022	-.036	.093*	-.009	-.034	1			
22	.171*	-.041	.159*	.015	.177*	.052*	-.101**	-.124**	.473**	.468*	.537*	.516*	.524*	.607*	.619*	.623*	.622*	.566*	.628*	.570*	.081*	1		

*p<.05. **p<.01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1.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2.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3.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4.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5.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6.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7.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8.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직업선택요인의 하위요인: 9.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10. 수입(임금)이 많다. 11.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 12.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13.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 14. 일하는 환경이 쾌적하다. 15. 시간적으로 여유가있다. 16.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보장된다. 17.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 18. 직장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19.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20.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21. 자아정체감 전체값 22. 직업선택요인 전체값.

Table 4 에서 자아정체감과 직업선택요인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 1요인(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은 직업선택요인 9, 11, 12, 13, 14, 16, 17, 19, 20번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 2요인(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은 직업선택 10번 요인과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직업선택요인 12, 13, 16, 17, 19, 20번 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3요인(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은 직업선택요인 9, 11, 12, 13, 14, 15, 16, 17, 20번 요인과 정적상관관계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 4요인(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은 9, 10, 11, 12, 18번 요인과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13, 19, 20번 요인과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정체감 5요인(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은 직업선택요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 요인과는 정적상관관계만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 6요인(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은 9, 10, 14, 16, 18과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나고 20번 요인과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정체감과 7요인(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은 직업선택요인 11, 12, 13, 17, 19, 20번 요인과 부적상관관계만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 8요인(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또한 직업선택요인 13, 14, 15, 16, 17, 19, 20번 요인과 부적상관관계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며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자아정체감 요인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며 사회적 명예나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요인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보장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는 직업선택요인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입이 많고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것에 대한 직업선택요인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일에 끝까지 몰두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따라서 일을 하거나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쉽게 받는 요인, 그리고 낯선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불편한 요인들은 수입(임금)이 많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

과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다양한 경험 할 수 있는 요인과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3.1.2 자아정체감과 취업준비활동과의 상관관계

자아정체감 변인과 취업준비활동 하위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Self-identi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Factors	1	2	3	4	5
Self-identity	1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1)	.150	1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2)	.195	.084	1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3)	.080	.384**	.234*	1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201	.653**	.653**	.788**	1

**<.01, *<.05

1. 자아정체감 전체값, 2. 취업준비활동 1(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 3. 취업준비활동 2(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4. 취업준비활동 3(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5. 취업준비활동

이는 자아정체성이 취업준비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취업준비활동에게까지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자아정체성이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Self-identity and Career choice facto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	VIF
		B	β			
	Constant	1.548		20.633	.000	
Career choice factors	.104	.029	.081	3.510***	.000	1.000

**p<.0

Table 6에서 살펴보듯이 자아정체성이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beta=.081, P<.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사회인이 되기 위한 고등교육을 통해 자아정체감 확립과 취업이라는 과업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정체성과 직업선택요인, 취업준비활동 간의 관계와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직업선택요인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자아정체감은 대학생 시기에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직업과 진로정체성과 연관되어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7-9] 이는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직업을 선택할 때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직업선택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자아정체감은 취업준비활동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연 자아정체감이 대학생들에게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직업이나 취업준비활동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의 고민이며 출발점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구체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활동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3].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자 하며 앞으로 대학생들의 자아정체성확립과 취업준비활동과 같은 교육적 활동이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N. S. Park . (2005). The Effects of Ego Identity Status on Couple Relationship Stisfact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1), 197-215.
- [2] J. Y. Kim. (2017).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The Convergence of the Servant Leadership of SMEs on Interpersonal Rel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65-170.
- [3] E. B. Lee & Y. H. Kim. (2004). The Casual Relationships among Multiple Intelligences, School Environments, Ego-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7(1), 39-53.
- [4] E. H. Erikson.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5] M. H. Hwang, H. J. Lim, J. S. Im & B. Y.Son. (2012). Understanding Latent Sub-groups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Level of Ego-identity. *Asia Journal of education*, 13(3), 115 -142.
- [6] S. Y. Park & H. b. Kim . (2012). A study on the reflective practice for identity development through journal writings.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6(1), 153-178.
- [7] B. W. Seo. (2013).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3(2), 65-81.
- [8] J. h. Lee. (2011). A Study on job selection reasons and choice motives of major for college students in culinary and food service in Bus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19(2), 69-85.
- [9] H. J. Jang & Y. J. Lee. (2019). The Effect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Ego-Identity on College Life Adaptation.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2), 93-99.
- [10] Y. R. SEO & S. H. Lee. (2012). Comparison between self-identity and career-identity on career attitude matur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2), 525-542.
- [11] Y. H Kim & K. H. Kim. (2011). The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tween Ego-identity Achieved and Foreclosed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9(1), 169-182.

- [12] P. S. Yang, S. H. Oh & S. S. Park. (2007). A Study on the Job Selection Motives and Satisfaction of Tourist Guides: Focused on Japanese Tourist Guides in Jeju.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21(1), 175-192.
- [13] S. S. Bea & S. I. Chang. (2017).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for their Awareness of Good Job. *The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and Information Research*, 36(1), 59-80.

한 미 희 (Mi-Hee Han)

[종신회원]



- 1991년 2월 : 동국대학교 윤리문화학과 (문학사)
- 2004년 2월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0년 10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관심분야 : 교육, 통계, 이러닝
- E-Mail : diaplus@nsu.ac.k